

농구부, 한양대에 74-55로 승리... 5승 2패로 리그 4위

유진우 기자 jinwooryu@khu.ac.kr

【국제】우리학교 농구부가 시즌 초반 강력한 기세로 '2026 KUSF 대학농구 U-리그' 5승 2패를 기록하며 4위에 올랐다. 지난달 29일 한양대학교 올림픽 체육관에서 열린 U-리그 한양대전에서 74-55로 승리하며 지난 중앙대전 패배를 딛고 다시 일어섰다. 이로써 지난해 3월과 5월 두 차례의 한양대전 패배를 설욕했다.

이날 우리학교는 1쿼터, 임성채(스포츠지도학 2023) 선수의 첫 득점 이후 10점 차까지 벌리며 앞서갔다. 이후 2쿼터에서 24-24로 추격을 당하기도 했으나 박창희(스포츠지도학 2024) 선수의 연이은 득점으로 다시 격차를 벌렸다.

이어진 3쿼터, 한양대가 6점 차로 다시금 거리를 좁혔지만 5연속 득

점으로 스코어링 런을 만들며 승기를 잡아냈다. 4쿼터에도 4연속 득점을 올리는 등 74-55 대승으로 마무리했다.

11득점 7리바운드를 기록한 주장 김수오(스포츠지도학 2023) 선수는 "강점인 수비에 모두가 집중했고 덕분에 좋은 시너지가 났다"며 "선수들 누구 하나 빠짐없이 한 발 더 움직이려 노력했다"고 승리 요인을 밝혔다. 김 선수는 남은 경기를 두고 "모조리 이길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다"며 "부상 선수들의 복귀 또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올 시즌 팀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높은 슛 성공률이다. U-리그 참가 대학 중 2점슛 성공률은 51.5%로 4위, 3점슛 성공률은 32.5%로 2위다.

선수들은 자신감을 그 비결로 꼽았고, 감독 역시 이를 강조했다. 김



지난달 29일 한양대학교 올림픽 체육관에서 열린 U-리그 한양대전에서 74-55로 승리하며 지난 중앙대전 패배를 딛고 다시 일어섰다. (사진=유진우 기자)

감독은 "자신의 슛 폼을 만들었다면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감 있

게 던지라고 이야기한다"며 "캐치 후 슛까지 0.3초 안에 이어질 수 있

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함께하는 농구'를 핵심으로 언급했다. 김 감독은 "새로 합류한 김민구 코치와 한뜻으로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고, 선수들도 잘 따라주고 있다"며 "좋은 퀄리티를 만들기 위해선 결국 충분한 훈련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사람의 능력만으로 팀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배려와 희생이 이어지는 농구를 만들고 싶다"며 팀 중심 농구의 방향성을 설명했다.

다음 경기는 오는 26일 선승관에서 열리는 성균관대전이다. 일정에 여유가 있는 상황에 김 감독은 "선수들에게 5일까지 휴식을 준 뒤, 6일부터는 지난 경기에서 부족했던 1대 1 수비와 박스아웃을 집중적으로 보완했다"며 "상대 분석과 준비에도 많은 시간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축구부 시즌 첫 4경기 무패, "U-리그 3권역 우승이 목표"

도은오 기자 eunohdo@khu.ac.kr

【국제】축구부가 8일 반송체육공원축구장에서 열린 '2026 KUSF 대학축구 U-리그' 수원대와의 원정경기에서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이로써 U-리그 3권역 첫 4경기에서 2승 2무의 성적을 거두며 6개 팀 중 1위에 올랐다.

축구부는 지난달 17일 장안대와의 개막전에서 1-0 승리를 거뒀다.

이어 지난달 23일 명지대전 1-1 무승부, 이달 1일 국제사이버대전 4-2 승리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었다. 수원대전 무승부까지 더해 현재 승점 8점을 쌓았다.

주장 장하윤(스포츠지도학 2024) 선수는 "첫 4경기 동안 선수들이 비시즌에 준비한 것들이 잘 드러났다"며 "아쉬운 결과도 있지만 경기를 치를수록 팀이 단단해지고 있음을 느끼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신입생으로 올해 첫 U-리그에 참가하며 2골을 득점한 박태양(스포츠지도학 2026) 선수는 "대학레벨의 경기를 처음 뛰어봤는데 속도와 에너지 차이를 실감했다"며 "2골을 기록해 기쁘지만 안주하지 않고 더 많은 득점을 노리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개막 후 2골을 득점한 박민서(스포츠지도학 2025) 선수는 "경기를 뛰면서 득점에 대한 생각이나 욕심은 없었다"며 "승리하는 걸 목표로

뛰다보니 개인과 팀의 성적이 모두 잘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김광진 감독은 "공격적인 전술을 구사해 4경기 동안 7골을 득점한 점은 고무적"이라면서도 "실점을 허용한 수비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수비 전술이 아직 완전히 안정화되지 않아 수정할 사항이 많다"고 설명했다.

축구부는 지난 2월 '제62회 춘계 대학축구연맹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다. 올

해는 리그에서도 좋은 흐름과 함께 다시 높은 곳을 바라본다.

박 선수는 "매 경기 주도적으로 풀어나가다 보면 목표인 U-리그 무패우승에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감독은 "올해 많은 선수가 영입됐기에 적어도 U-리그 3권역 1등은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한 경기마다 차근차근 승리하다 보면 우리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거 같다"고 말했다.

KYUNG HEE UNIVERSITY

Global Collaborative 2026 Summer Program

From Seoul to the World

"국내외 석학 및 국제기구 전문가의 강의를 듣고 세계 여러나라 학생들과의 교류의 장을 경험하세요!!"

- 프로그램 기간: 2026. 06. 30.(화) ~ 07. 20.(월)
- 개설강의: "Humanity, Civilization and Global Governance"에 특화된 23개 강의 (GC홈페이지 참조)
- 참여대상: 국내외 대학(원)생
- 신청방법: 2026. 06. 12.(금) 까지 GC 홈페이지 내 신청
- 장학금: 조교장학: 강의료 100% 감면 (강의 당 1명씩 모집)
경희대 동문자녀장학: 강의료 30% 감면
경희대 교직원자녀장학: 강의료 50% 감면
- 문의: 미래문명원 Tel: 02-961-0995-6 Email: summer@khu.ac.kr 홈페이지: http://gafc.khu.ac.kr/gep

수강신청
바로가기